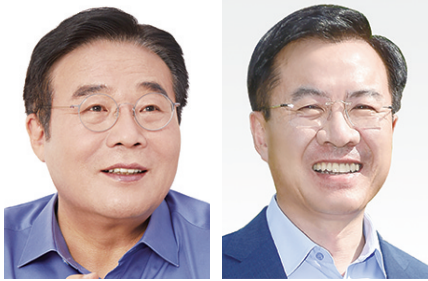


“지역 당선인들 호남정치·민주주의 회복 힘써야”

이병훈·윤영덕 의원이 당선인에 전하는 제언

“지역 새 대변인 역할 충실” 당부
이 “상임위서 민생 지켜내는 역할”
윤 “국가 비전 만드는 의정활동”



이병훈

윤영덕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8곳 선거구에서 모두 승리한 가운데 광주지역 현역 의원들이 지역 당선인들에게 민주주의 회복과 함께 광주·전남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광주·전남의 새로운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은 물론 대의와 명분을 중시했던 호남정치를 복원하고, 정권교체를 이뤄내는 데에도 주도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연남동대표는 이날 제22대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21대 광주 동남을 의원인 이병훈 광주시당 위원장은 지역 당선인들에게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을 살리는 데 주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항상 유권자를 먼저 생각하고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을 지켜내는 역할을 각자의 상임위에서 충실하게 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국회의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면서 “지역구를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벽찰이지만 국정, 국가의 일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당선인 모두 그 역할에 충실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1대 광주 동남갑 의원인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연남동대표는 지역과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은지 기자

윤 대표는 “국회의원은 그야말로 국가 운영을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헌법기관’을 이끄는 사람이다”며 “당선인들에게 주어질 수많은 역할 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 국가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이어 “늘 자신을 선출해 준 유권자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그들의 삶 속에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진정한 국민의 대표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윤 대표는 “한편으로 국민들은 권한을 위임했음에도 늘 선거가 끝나고 나면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기대와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줘 정치에 대한 실망이 커져 있는 상황이다”며 “이 한계를 극복하고 부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탐구해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방향으로 정치를 변화시키고 대한민국 미래와 비전을 만들어 내는 진취적인 역할을 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병훈 의원은 민주당 광주시당 선거대책위원회를 총지휘하며 광주지역 후보들을 지원해 왔으며, 윤영덕 의원은 야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연남동대표를 맡아 이번 총선에서 범야권 승리를 위한 민주당의 연대와 협력을 이끌었다.



개표 작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종료된 10일 광주 동구 다목적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22대 국회 개원 준비 종합지원실 가동

국회사무처, 의원 등록업무 등 진행
의원 배지 공개·등록 순서로 배부



4·10 총선이 막을 내리면서 제22대 국회 개원 준비가 본격화된다.

10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을 개소하고, 의원 등록 등 업무를 시작한다.

개원종합지원실은 11일부터 22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날인 오는 5월 29일까지 국회법 제2조2항에 따라 개원 업무를 처리한다.

주요 담당 업무는 국회의원 등록업무를 비롯해 국회 출입증 발급, 보좌직원 임용 및 입법지원기관 안내 등이다. 앞서 국회사무처를 비롯한 소속기관은 지난 3월부터 개원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개원준비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국회사무처는 22대 국회의원의 배지를 공개했다.

국회의원 배지에는 국회를 상징하는 국회회장이 담겨있다. 국회회장은 무궁화 안에 ‘국회’라는 한글 두 글자가 기재돼 있다. 무궁화 안의 원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하나의 결론으

로 수렴해 내는 의회민주정치의 본질을 상징하며, 무궁화 꽃잎 형태는 국민과 국회가 소통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의원 배지에는 일련번호가 새겨져 있으며, 등록순서에 따라 배부될 예정이다. 국회의원 배지는 은(銀) 99%에 미량의 공업용 금을 도금해 제작된다.

처음 의원 등록을 할 때 1개를 무료로 제공하며 분실하거나 추가로 구매를 원할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3만5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 등 총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임기는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다.

서울=김선숙 기자

#만성악취 #땀냄새 #홀애비냄새 #사춘기냄새 #아빠냄새

냄새 덮지 말고 ‘분해’하세요!

냄새 제거 팁 공유!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찍어보세요

- ☑ 사춘기 냄새? 홀애비 냄새? 땀 냄새? 노인 냄새? 도대체 그 원인은 무엇인가?
- ☑ 정수리부터 발까지 좋은 냄새와 건강한 냄새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 몸이 아프면 몸 냄새도 안 건강하지 않을까?

디오도르는 분해효소로 체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합니다.

씻어내고!
알데히드 체취 분자 분해 효소 함유

예방하고!
덱스판테놀 30,000 ppm

머무는 공간까지!
여름에 악화되는 체취케어

Deodor [De-odor] : 냄새를 제거하다

문의전화 1588-8529